



뉴스 안내광고 | 한인업소특 날씨 | 카페 | 라디오서울 | KTAN TV

LOS ANGELES: 66° . 종합/사회 . 경제 . IT/과학 . 스포츠 . 라이프 . 연예 . 문화 . 사실/컬럼 . 뉴욕타임

로그인 회원가입

F

스

입

Los Angeles | New York | Washington DC | San Francisco | Chicago | Seattle | Atlanta | Texas | Hawaii | Vancouver

사회/커뮤니티

뉴스홈 > 사회/커뮤니티

크게

작게

기사프린트

기사이메일

많이 본 기사



시교육청 가정참여지원실 마틴 게리어 국장

“궁금증 언제든 해결”

뉴욕시 교육청 가정참여지원실(OFEA)의 마틴 게리어(사진) 국장. 영어가 불편한 한인 학부모들도 뉴욕시 교육청 본부 직원 가운데 가장 부담 없이 언제든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

OFEA가 'Office for Family Engagement & Advocacy'의 약자라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가 하는 주요 업무가 바로 뉴욕시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3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 응한 게리어 국장은 성보다는 '마틴'이라는 퍼스트네임으로 학부모들과 더 친근하다. 시 교육청 웹사이트에는 '마틴에게 물어보세요'란 코너로 그의 전화번호(212-374-2323)는 물론, e-메일 주소(AskMartine@schools.nyc.gov)가 늘 공개돼 있다.

게리어 국장은 "뉴욕시 공립학교와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정보 문의나 자녀교육 문제, 심지어는 교내 문제는 물론, 학교 밖의 일이나 학생과 연관된 가정문제까지도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연락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답을 찾는 데 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가 불편해 한국어로 전화하거나 한국어로 e-메일을 보내더라도 뉴욕시 통번역부(TIU) 한국어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바로바로 한인 학부모들의 온갖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지난 5월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주최 스승의 날 행사에 처음 참석한 것이 인연이 돼 한인 학부모들과 친숙해진 게리어 국장은 이달 16일 센트럴파크에서 시 교육청 주최로 열리는 '제1회 패밀리 박-투-스쿨' 행사를 앞두고 한인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 스쿨버스 4대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런가하면 가을학기가 개학한 뒤 한국어를 비롯한 소수계 8개 언어별로 각 지역마다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이민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새 학년, 새 학기를 알차게 시작하도록 돕는 일에도 나선다.

게리어 국장은 "학교가 단순한 지식전달의 창구가 아니라 학생들이 전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참교육의 현장이 되려면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그런 의지가 있는 학부모들을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인 만큼 보다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OFEA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력일자: 2008-08-14



- 여권 위조해 계좌오픈 한인 2명 은행
- "한국음식 먹으려면 펄팍으로 가라"
- "덜 익힌 생선 먹고 촌충"식당상대 10
- 환율 8일째 상승행진
- 시행중단 위기 '헬시 패밀리' 한인 1만
- 스킨케어업소 사망 한인 커플 "제3인
- 빈불... 옥실... 야구장 추태 얼룩
- 금보다 더 빛남 끝져
- "담임목사직 충실히 수행"
- 한국학교 크게 줄어...뉴욕 등 동부 5

이벤트 공지사항

- 한국일보 지면제작자 모집
- Receptionist 모집
- 한국일보 사업국 직원 모집
- 한국일보 웹사이트 개편
- 한국일보-POSDATA IPTV 공동..

동영상 뉴스 more

뉴스검색

날씨

Zip Code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안내 광고

- 구인/구직
- 렌트/리스/하숙
- 부동산
- 중고차
- 학생모집
- 사업체매매
- 전문업체

열린마당

- 한인타운 미용실과담 진짜가요?
- 그동안 열린마당-유익했습니다.
- 저도 작별을 고합니다. 불경기에 힘나
- 운영자님께
- 요즘 라디오 코리아 보도를 보면 한

구인구직

- 다운타운 인터넷 여자웃 쇼핑몰 관리
- Marketing 사원 (주부, 학생..
- 건강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 모집 합니
- ♣♣♣♣오라토리오 합창단원 모
- ∞..
- PART TIME 직원채용

Garage Sale

- 월풀 gas stove 팝니다
- teac pd-d2391 5-disc..
- denon dcm-370 5-disc..
- pioneer pd-f507 25-d..
- 제빵 믹서 60Q 호바트제품 매매

홍보마당

- 관광지로 유명한 팜스프링에 있는 단
- 무료로 베이징 올림픽 시청하시고 영
- 이삿짐 맡겨주세요..신속,안전,저렴
- 통신회사에서 \$500 투자자를 모집하
- 일하자USA - 미주유흥구인구직

[홈으로](#) |
 [회사안내](#) |
 [게임월드](#) |
 [한인업소](#) |
 [구독신청](#) |
 [배달사고접수](#) |
 [독자의견](#) |
 [안내광고신청](#) |
 [place an AD](#) |
 [광고안내](#) |
 [라디오서울 생방송](#)

Interview with Martine Guerrier, OFEA Chief Family Engagement Officer, NYCDOE

Korean parents who have limited English proficiency should feel free to contact Ms. Martine Guerrier, Chief Family Engagement Officer of OFEA among NYCDOE's central office employees.

As the name of the office she heads indicates, 'Office of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OFEA,' Ms. Guerrier works directly with NYC immigrant parents to engage them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Korea Times had an exclusive interview with Ms. Guerrier on August 14. She is well known as simply 'Martine' among parents because of her Ask Martine section on the DOE website which has her phone number 212-374-2323 and e-mail address AskMartine@schools.nyc.gov.

Ms. Guerrier said, "When I am asked about the NYC public education system, children's education, or family matters that occurs outside of schools, I try to find solutions for parents promptly." Even though parents call or write e-mails in Korean, because of their limited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she tries to reply as soon as possible with the help of Korean translators who work at the NYCDO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Unit. She indicated, "If you are getting frustrated with an education related problems, feel free to communicate with me".

NYC Korean Parents Association held the Teacher's Day event last May, and Ms. Guerrier was invited. Through this event, she familiarized herself with the Korean Parents Association and she promised to provide 4 buses for the Korean parents who planned to attend the Family Back to School Kick-off in Central Park. She mentioned that she would also provide native language forums in 8 different languages to help with immigrant parents'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new school year in the fall.

Ms. Guerrier said "In order for schools to be a place where students can have a good all-round education, engaging parents is vital. I am here to help parents who want to be involved with their children's education, so I would like to see more Korean parents use the various services available through OFEA".